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영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자율기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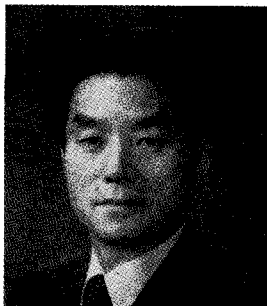
최근들어 우리 낙농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말에 일어난 우유의 위생논쟁이후 우유 소비가 영향을 받았고, 지난 7월부터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련은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고,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지금 우리 낙농업이 당면한 이와같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낙농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낙농산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불과 16년전인 1980년만해도 45만톤에 불과하던 원유생산량이 지난해말 203만톤으로 4.5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낙농인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여러가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농농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 정부등 전낙농인이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시장개방의 시련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농가는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여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농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생유의 경우에는 유통시간이나 위생 등의 문제가 있어 아무래도 외국의 생유가 국내에 들어와 경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터, 치즈, 분유등 유제품의 경우에는 값싸고 질좋은 외국제품이 얼마든지 수입될 수 있으므로 우리 낙농가는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입니



조 일 호
 농림부차관,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 위원장

다. 한 푼의 생산비라도 줄이고 줄여 외국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영양과 맛을 높이고 높여 외국 제품과의 품질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양관리, 보다 과학적인 생산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낙농관련단체는 단체대로 낙농농가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아래 낙농제품의 유통·가공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낙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보다 신선하고 신속하게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는 일, 다양하고 새로운 가공제품의 개발·공급으로 외국제품과의 경쟁은 물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일 등은 낙농관련 단체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와같은 일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낙농산업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우리나라농산업발전의 기틀이 될 낙농진흥법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낙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유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제도화하고 집유의 일원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한편, 원유검사를 공영화함으로써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낙농진흥회의 기능과 역할이 향후 우리 낙농산업의 도약을 이룩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낙농진흥회의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만큼, 낙농진흥회가 낙농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립에 만전을

낙농가가 생산한 제품을 보다 신선하고 신속하게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는 일, 다양하고 새로운 가공제품의 개발·공급으로 외국제품과의 경쟁은 물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일 등은 낙농관련 단체의 사명일 것입니다.

낙농가와 생산자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정부도 법적,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와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할 것입니다.

먼저 낙농진흥회는 원유생산자, 소비자, 학계등 낙농산업과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기구로 운영하고, 기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자율적 운영을 통해 집유의 일원화 등을 이룩함으로써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집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낙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유검사의 공영화·객관화를 확보하여 고품질의 원유생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위생등급을 높여 선진국 수준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낙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푼의 비용이라도 더 줄여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노력이 지속될때, 우리 낙농산업은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설립될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이와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낙농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입개방 등의 어려움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양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낙농가와 생산자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정부도 법적,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함으로써 이와같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뒷받침할 것입니다. 낙농산업, 그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